

# 중국과 베트남 : 심화될 잠재적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는 관계

고 성 빈\*

## 목 차

- I. 서 론
- II. 잠재적 갈등의 배경
- III. 잠재적 갈등의 표면화 및 전개
- IV. 향후 관계 전망
- V. 결 론

## I. 서 론

중국과 베트남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로서 역사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여 왔다. 강대국인 중국과 달리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서 오랫동안 항쟁과 갈등, 협력관계를 겪어 왔다. 1979년 중국은 베트남에게 교훈을 준다는 명목으로 침공을 단행하여 베트남의 인도차이나지역에서의 패권추구를 무력으로 제지하기도 하였다. 한국도 중국과는 역사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갈등과 협력을 겪으면서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하여 왔듯이 베트남도 중국과의 갈등과 협력을 거듭하면서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하여왔다.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유교권 국가들의 예에서 보듯이 중국문화에 대한 경외심과 중국의 대국주의에 대한 분노가 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21세기를 맞이하여 중국-베트남관계의 갈등과 앞으로의 협력의 전망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 II. 잠재적 갈등의 배경

중국-베트남 갈등관계에 있어서 근본적 요인은 중국의 대국주의적 중화사상과 이에 대항하

\*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상임연구원

는 베트남의 민족주의적 감정이다. 중국은 베트남을 고대로부터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통치하거나 속국시 하여왔다.<sup>1)</sup> 전통적으로 만리장성이북의 북방의 야만족과 남방의 야만족은 중국을 상국으로 인정하며 그 대가로 중국문화의 수입을 윤택받는다. 베트남은 중국의 인식에서는 남만(남쪽의 야만인)으로서 중국의 번속국 - 중국의 여러 개의 제후국의 하나에 해당하며 조선이나 발해와 비슷한 존재 - 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중화사상 안에서는 과거에 국가간의 조약으로 책정되었어야 할 국경선 부근의 모호한 영토는 중국은 자국의 영토로 인식한다. 그리고 남사군도의 도서지방도 마찬가지다. 일종의 중화사상에 입각한 대국주의적 발상이다. 17세기에 러시아와 청제국의 경우는 충돌이 일어난 후 양국이 더 이상의 충돌은 서로 막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어 국경선을 확정하였으나 베트남의 경우에는 국력의 차이때문에 평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는 게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베트남의 경우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중국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장기적으로는 반중국적 감정을 품게되었던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서구제국주의침략을 받은 후 각자 복잡한 과정을 거쳐 중국은 공산주의혁명으로 새로운 건국을 쟁취하였으나 베트남은 수동적인 해방을 맞아 다시 한번 시련으로 점철되는 통일과 독립의 과정을 겪게된다.

195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베트남과 중국의 기본관계를 구분 짓는 분수령은 월남전쟁의 종결시기인 1970년대 초반이다. 1950년으로부터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동안 중-소분쟁이 시작되었지만 베트남과 중국의 안보관은 냉전적 사고에 기초했기 때문에 양국은 이념에 입각한 외교를 수행하였으며 따라서 민족주의적 이익으로 인한 양국간의 관계는 이념적 동질성 - 북베트남을 지칭함 - 으로 인해 크게 충돌하지 않았다.

1950년에서 1978년 3월 완전히 원조를 중단하기까지 중국은 베트남에 200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행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원조는 우호국에 행해진 원조들 중에서 가장 장기간에 걸쳐서 가장 큰 액수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로 미루어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가 중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중반부터 중-소분쟁이 심화되고 월남전쟁에서 1968년 너슨의 Guam Doctrine 이후 미국이 군사개입을 축소하기 시작할 때부터 베트남과 중국은 공산주의국가이면서도 서로가 이해를 달리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통일이전은 북베트남을 의미함)은 외교적으로는 중국-소련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중국과는 달리 남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었던 미국을 제 1의 적으로 간주하였고 중국은 점차 제 3세계론에 기초하여 소련을 제 1의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sup>2)</sup> 중-소분쟁으로 인한 소련의

1) 베트남의 북부지역은 B.C. 111년 중국의 前漢의 지배를 받았으며 한의 통치는 939년에야 종식하였으나 1407년 중국에 다시 정복되었다. 거국적인 저항운동으로 1428년 다시 중국세력을 몰아내고 중국식 관료주의 왕조가 수립되었다. 1883년-1939년 기간에 프랑스의 식민통치시대를 거쳐 1945년 胡志明의 지휘하에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전쟁(1955~1975)이 발발함으로써 베트남의 역사는 한국과 폴란드등과 같이 주변강대국들에 대한 끝없는 항쟁의 역사를 겪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1974년 등소평 당시 부주석의 유엔총회연설에서 모택동과 중국공산당을 대표하여 중국의 세계관을 피력하였다. 세계는 제국주의국가인 미국과 사회주의제국주의 소련을 제 1세계, 일본과 서유럽제국을 제 2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제 3세계라 구분지었다. 중국은 제 3세계에 속한다고 하

점증하는 위협에 중국은 미국에 접근하게 되었고 이러한 중-미화해는 베트남에게는 중국이 우방국인 베트남에의 우의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1969년 3월 진보도(소련명은 다만스키도)에서 중-소국경분쟁이 발발하였을 때 베트남의 주요언론에는 과거의 한족의 베트남침략을 언급하면서 현재도 그러한 침략주의가 살아 있다고 간접적으로 중국을 비난하였다. 1969년말에 편찬된 '베트남노동당 40년사'에는 친중파인물이었던 胡志明(1969년 9월 사망)의 1920년대와 30년대의 중국에서의 활동사를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동년 소련이 체코를 침공하여 민주화운동을 진압했을 때 중국은 소련을 '사회주의제국주의'라고 맹렬히 비난을 한 반면 베트남은 사회주의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소련을 옹호하였다. 이러한 베트남의 태도는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을 시사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체로 1975년 4월 월남전이 종결될 때까지 베트남-중국관계는 우호적이었으나 그 이후로 점차 상기한 잠재적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통일 이후 베트남과 중국의 불화와 대립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베트남전당시 대미전략에 대한 베트남과 중국의 의견불일치<sup>3)</sup>, 중-소분쟁의 심화로 인한 베트남의 이념적 혼란과 등거리 외교, 중국이 미국과 화해를 추구함으로써 베트남이 이에 반발, 베트남과 중국의 영토분쟁, 인도차이나 패권을 추구하는 베트남과 이를 견제하는 중국, 베트남의 친소화와 중국의 위협의식등 여러 요인들이 있다.

### Ⅲ. 잠재적 갈등의 표면화 및 전개

통일 후 베트남은 민족주의적 감정의 발로로써 중국과의 영토문제, 인도차이나연방 성립에 대한 열망으로 이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는 애초에 유지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베트남에게는 중국과 우호를 맺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원조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중국을 견제하고 전후복구를 위한 경제원조를 위해 친소련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전이후의 베트남의 일차적 관심은 연안도서의 확보문제에 집중 남중국해의 남사군도 - 영어명칭은 Spratly군도 - 의 여러 섬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이 군도는 일본, 필리핀,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이 있는 곳이다. 다음으로 육상국경지역에도 베트남군은 수비대를 배치하여 중국과 대치하였다. 1976년경부터 중국-베트남은 국경지역에서 잦은 소규모 충돌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1976년 말과 1977년 6월에 걸쳐서 양국은 국경회담을 진행하였으나 견해 차이가 너무 컸다. 즉 중국은 청-불조약에 근거하여 국경선문제를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고 베트남은 과거의 청-불조약은 시기적으로 오래되어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77년 5

---

고 제3세계가 단결하여 제 2세계와 함께 제 1세계에 대항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기할 것은 공산주의국가 - 소련을 지칭 - 도 제국주의적 팽창을 추구한다고 비난한 것이다.

3) 베트남은 속전속결을 주장하여 전면전으로 나가자고 하였고 중국은 과거의 국민당과의 내전을 경험으로 장기적 지구전을 주장하였다. 결국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중국의 속셈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우방인 베트남전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월 베트남은 18Km 영해와 320Km의 전관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동년 6월에는 이에 대항 중국은 남사군도를 중국영토에 복귀시킨다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베트남은 이에 질세라 새로 선언한 경제수역방어를 위해 해군을 파견 기동작전을 감행하였다.

영토문제 이외에 베트남내의 화교처우문제는 양국간의 분쟁을 가속화시켰다. 베트남은 종전 후 사회주의에 반대하거나 중국과의 분쟁에서 잠재적 내통자들을 축출한다는 의미에서 화교들을 핍박하였다. 1978년 17만의 화교들이 육로나 해상을 통해 중국으로 입국하였다. 난민이 대거 몰려들다 78년 7월 이후부터 중국은 국경을 봉쇄하였다. 9월에는 난민문제를 가지고 양국이 회담을 벌이지만 170만 화교를 놓고 중국과 베트남은 서로 자국의 시민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타결을 볼 수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국경지대의 화교난민을 둘러싸고 양국의 국경수비대끼리의 충돌이 빈번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국관계를 급속히 악화시킨 것은 베트남의 인도차이나연방실현을 위한 대외팽창정책이었다. 베트남은 이것의 실현을 위해 중국보다 소련에 기울어졌다. 베트남의 인도차이나연방구상은 라오스에서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으나 캄푸치아에서는 폴포트정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폴포트정권은 중국의 지원하에 베트남에 대항하였던 것이다. 베트남은 이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련과의 안보조약을 추구하였고 1978년 6월 소련과 동구권국가, 쿠바 및 몽고가 가입한 COMECON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11월에는 소련과의 25년간의 우호협력조약을 조인하였다. 이 조약은 어느 당사국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위험을 받을 때 당사국들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협의할 것이라고 명기되어있다.

이렇게 베트남이 소련과 안보조약을 체결하고 중국이 지원하는 캄푸치아에 무력을 사용 병합하려고 할 때 중국은 결국 군사력에 의한 응징을 고려하게 되었다. 1979년 2월 17일 중국은 전격적으로 베트남국경을 공격하였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장기항전의 태세를 갖추었다.

당시 중국의 최고실력자 鄧小平은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침공을 단행 마치 미국과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함으로써 소련의 간섭가능성에 대한 심리적인 경고를 하였다. 소련은 중국의 침략이 개시된 다음날 성명을 발표하고 즉시 침략을 중지할 것과 베트남에 대한 조약의무를 존중할 것이라는 경고를 발하였으나 더 이상의 적극적인 개입은 피하였고 중국도 단기간에 걸친 전격전을 마친 후 철수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 전격전에서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았다고 평가된다. 중국의 구실이었던 화교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였고 베트남의 친소화를 더 부채질하고 말았다. 중국의 전격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침략에서 중국군이 가지고 있는 재래적인 유격전식의 군사편제와 무기체계에대한 무력함만 노출시키고 말았다. 예상과는 달리 베트남군에게 절대적인 승리를 쟁취하지도 못하였고 그 결과 미국, 소련 등 서방국에게 중국의 군사력의 무능함만 노출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동소평의 군현대화 개혁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sup>4)</sup>

1979년 중국의 베트남침공은 베트남의 캄푸치아병합을 제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지역에서 소련세력의 증대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베트남정권의 화교대우문

4) 이 때부터 동소평과 군부 개혁파가 보수파에 비하여 실제로 군현대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제등은 사실상 부차적 구실에 불과하였다. 전쟁이 종식된 후 베트남은 중국의 베트남에 대한 모든 공격행위와 도발을 중지할 것을 협상의 사전조건으로 내세웠고 중국은 국교정상화 선제 조건으로 베트남군의 캄푸치아에서의 철군을 주장하였다. 소련과의 국교정상화에서도 중국은 3대 선결과제의 하나로 베트남의 캄푸치아철군을 주장하게 된다.<sup>5)</sup>

1980년대에 와서도 양국은 캄푸치아를 둘러싸고 갈등을 계속하였다. 태국과 중국은 민주캄푸치아를 지원하여 베트남을 견제하였다. 중국은 베트남의 캄푸치아점령이 동남아평화에 장애가 된다고 하고 베트남은 동남아국가들이 중국을 가장 큰 잠재적 위협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이용하여 아세안국가에 접근하였고 이와 같은 양국의 갈등은 동남아지역에 정치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조성하였다. 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캄푸치아의 저항세력이 곤경에 처하면 베트남에 대한 응징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를 발하였다.

80년대에는 중국은 개혁으로 국내문제에 치중하게 되고 베트남도 국내문제에 치중 갈등은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중-베트남관계와 세계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 IV. 향후 관계 전망

기본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은 중국의 대국주의적 태도로 베트남을 대해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외교전략에 있어서 어느 한 초강대국에 의한 동남아 패권반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베트남의 지나친 세력증대를 가져오는 인도차이나연방을 반대하고 소련의 영향력확대에 단호히 대항하였었다.

그리고 남중국해의 남사군도등의 영토문제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약소국인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제국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일본, 러시아, 인도, 베트남등 동남아제국들과 영토분쟁을 안고 있는바 그중 러시아와의 경우를 제외하면 앞으로도 많은 알력이 예상이 된다. 비록 냉전이 종식된 후에 화해와 다극화를 추구하면서 영토분쟁이 잠재되어 있으나 앞으로도 분쟁의 소지는 다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988년 중국은 미국의 필리핀 수비만과 클라크기지철수에 이어 기다렸다는 듯이 남사군도의 조어도 - 일본명은 센가꾸도 - 를 점령하였다. 남사군도의 영유권분쟁지역을 중국이 선제 점령한 것은 영유권주장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한 중국의 조치였다. 조어도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 부투나이와 대만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다. 중국은 1992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남사군도의 조어도등의 도서를 중국영토로 선언한 영해법을 제정하였다. 중국은 이후 남사군도의 주권을 주장하면서 동남아국가들의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하는 다자회담 - ASEAN, ARF 등의 지역국제기구들 - 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으며 분쟁영토의 보호

5) 1979년 이래 지속적으로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정상화의 3대장예요인의 - 중소국경에 배치된 소병력을 60년대초 수준으로 감축하고 몽고주둔 소련군 철수, 소련군의 아프간철수, 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지원중단을 끈질기게 주장하여왔다. 이것은 1985년 3월 고르바초프의 등장이후 해결되었다.

를 위해서 해군력사용의사를 밝히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가 중국의 화교경제권과 더불어서 중국의 세력하에 있어주기를 바라고 있다.<sup>6)</sup> 1979년 베트남 침공은 구체적으로는 베트남내의 화교보호를 구실로 일어난 것인바 전 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한 화교의 존재를 주지시키는 효과도 노렸을 것이다. 또한 국경문제에 있어서도 동남아시아국가에 경고를 보내어 관련국들과 국경문제가 첨예화되었을 때 언제든지 무력사용도 불사한다는 심리적 위협인 것이다. 거시적으로는 소련의 팽창주의와 소련세력을 업은 베트남의 팽창주의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며 소련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국-베트남갈등은 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의 등장, 베트남공산당의 Doi Moi개혁의 추진을 그 정점으로 하여 새로운 획기적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sup>7)</sup> 베트남은 1975년 4월 30일 전쟁종식 후 1976년에 국가재통일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통일 후에도 오랜 내전의 후유증과 서방의 제재등을 극복키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제부진과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소련의 고르바초프집권과 이에 따른 사회주의권의 개혁분위기는 베트남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소련은 동남아 공산계열라에 대한 지원 중단과 ASEAN 비공산국과의 경제 무역관계증진, 베트남에 대한 지원중단과 베트남개혁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소련은 베트남의 캄란만 군사기지를 철수하였다. 이는 중국을 위협하고 미국, 일본의 석유수송로를 위협하여 소련과 미, 중, 일의 갈등을 야기했던 요인이었으며 중-베트남관계의 심각한 갈등요인이었다. 결국, 소련의 베트남 지원중단과 지역에서의 소련세력의 철수는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베트남은 국내경제의 부진과 소련지원중단으로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체제위기를 극복키 위해 1986년에 Doi Moi 개혁정책이 제시되었다. 베트남은 이에 지난 30년 동안 베트남의 발전노선이었던 스탈린-毛澤東노선을 포기하고 중국식의 사회주의시장경제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새로운 개혁정책에 따라 베트남은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의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1991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1994년 미국의 제재해제조치, 1995년 ASEAN 가입 등을 이룩함으로써 베트남개발에 필요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베트남은 개혁노선이 채택된 이후, 시장경제요소의 도입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생산활성화와 각 경제단위 및 지방의 경영자주권등 경제의 인센티브제도와 책임경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서방국가와의 무역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아시아국가들과의 정치관계의 회복 및 경제교류확대를 위해 적극노력하고 있다.

6) 1997년 홍콩의 반환, 1999년 마카오의 반환입박, 대만과의 교류확대로 21세기의 동남아의 '대중화경제권'에대한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대중화경제권'이란 이른바 중국인들의 경제협력의 광범한 네트워크이다. 이것은 홍콩의 사회학자인 黃芝蓮의 '中國人 共同體', '中國人 經濟集團'이라는 용어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구상은 동남아시아국가들로 하여금 미래의 중국의 지역에서의 영향력확대에 의구심을 느끼게 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중국도 공식적으로 '대중화경제권'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공식적 정책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黃芝蓮, "美國2033年:對美國關係的歷史學與未來學的分析" (香港: 中流出版社, 1980), p. 924; 박대권, "大中華經濟圈과 中國의 產業構造 調整" 中蘇研究, 1996 봄, pp. 33~60을 참조.

7) 베트남의 개혁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 이수훈, "베트남 발전노선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1994 가을-겨울, pp. 97~139.

1989년 중국의 천안문사태는 개혁정책의 추진에 일시적인 동요를 가져왔으나 세계적인 추세 앞에 베트남은 지속적인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였다. 중국의 개혁과 베트남의 개혁은 양국 관계의 화해와 진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동구의 몰락과 천안문사태와 같은 체제위기에서 베트남은 중국공산당과 같이 공산주의를 고수함으로써 이념상의 동지가 되었고 같이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과거의 적이었던 미국, 중국,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면서 베트남은 비공산권 국가와의 대외관계에서도 화해를 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중국과 같이 대외관계에서의 유연성으로 국내경제개방과 체제유지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과거의 적대적 관계에서 개혁의 동반자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베트남은 중국의 사회주의경제개혁과 그 발전에 많이 고무되어있다. 이 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양국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개혁을 철저히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모적인 분쟁은 피하고 국내개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1995년 베트남은 ASEAN에 가입하였다. 오랫동안 아세안의 여러 나라들은 베트남의 가입을 반대하여 왔다. 그것은 베트남의 인도차이나패권주의에 위협을 느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계속 베트남을 견제하여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캄푸치아철수 등으로 그러한 장애가 사라진 지금 반대할 명분이 사라져 베트남은 ASEAN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베트남의 아세안가입은 베트남의 개혁정책에 대한 동남아국가들의 지지의 표시이며 베트남으로서는 개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화해적 대외관계의 확립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베트남과의 분쟁을 피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이기는 하나 장기적으로는 우려를 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즉 남중국해의 남사군도 영유권분쟁에서 베트남은 동시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ASEAN 국가-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부루나이-들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 남중국해는 동남아시아의 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연안국 어느 나라도 놓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그러기 때문에 60년대 이래로 60여 개의 외국의 석유회사들이 남중국해로 진출하여 석유를 개발하려고 했었다. 70년대 이래로는 다투듯이 상기의 연안국들이 무력으로 32개의 산호도로 이루어진 남사군도를 점령하려고 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베트남의 ASEAN가입은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하여 ASEAN국가들이 연합하여 영토분쟁을 야기 시킬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중국을 안보상의 제 1의 적으로 규정하고 핵보유 선언을 단행한 인도는 급격한 해군력확장으로 동남아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서 지역에서 중국을 긴장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공교롭게도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인도는 남아시아에서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그 규모와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양국의 해군력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위협적인 인식을 가져다주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동남아는 인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남아시아의 연장이면서 인도의 안보상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인도는 동남아시아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동남아에서 중국과 세력경쟁을 벌일 태세

8) 중국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예상에 대해 실제로 우려하고 있다. 다음을 참조. 全毅, "冷戰後東南亞의安全形勢與安全保障", 東南亞研究, 1995年 第3期, pp. 37~39.

로까지 해군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인도 역시 영토문제로 중국과 대립하고 있고 동남아국가들이 이러한 중국-인도사이의 경쟁을 이용하려고 할 경우 이 지역은 큰 혼란이 예상된다. 물론 중국은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중국은 동남아국가들이 미국주도의 다자안보기구인 ASEAN Regional Forum(ARF)의 결성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sup>9)</sup> 그 이유는 다자안보대화가 미국의 영향력을 지역에서 증대시킬 우려가 있고 ARF회원국들이 연합하여 남사군도영유권분쟁에 있어서 중국에 대항할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은 어차피 결성된 ARF에 대해서 정면거부는 유보하고 소극적 참여를 하기로 하면서 남중국해의 영유권문제에 대해서도 다자협상방식에 유연성을 보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상호이해증진정도의 다자안보대화를 지지하면서도 긴요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여전히 비타협적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입장은 다자안보대화 자체가 실시는 미국이나 일본의 세력을 지역에서 증대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들이 동남아국들과 연계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무력충돌을 벌였던 베트남이 이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중국은 견제의 의사를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베트남은 동남아의 모든 기구에 참여를 함으로써 개혁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지와 교류를 확대시키고 있고 지역강대국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당당하게 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 등 강대국과의 정치경제적관계에 있어서 독자성을 유지하려는 여타의 ASEAN국가들과의 이해에도 일치하는 것이다.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국-베트남의 향후관계는 갈등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리라 예상된다. 양국간의 관계가 모든 방면에서 밀접해지고 있는 데서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국경수비대가 대처하고 있던 국경지역은 상인, 행상, 여행사 등이 자리하여 양국의 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sup>10)</sup>

최근에 양국은 당파 군관계대표들이 서로 교환방문으로 우호관계를 더욱 다지고 있다. 98년 1월 베트남의 레카퓌(Le Kha Phieu)공산당 총서기는 중국과의 증대되는 교류는 사회주의건설에 긍정적인 것이며 서로가 이에 대해 상호이해가 일치하고 있다고 주베트남 중국대사에게 말하였다. 98년 4월 중국공산당대표가 베트남과의 친선을 위하여 방문하였고 6월 江澤民主석은 베트남국방부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최근의 양국의 당, 군관계 고위공직자들의 상호 교환방문으로 인한 양국의 관계증진에 대해 대단한 만족을 표시하였다.<sup>11)</sup> 그는 양국의 군사교류와

9) 아태지역의 안보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ARF는 처음에는 ASEAN국가들이 동남아의 외교안보문제가 미-일-중국등 강대국들의 영향력에 지배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아태다자안보협력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역으로 ASEAN들이 강대국들보다 먼저 주도적으로 ARF를 출범시켰다. 그 배경은 강대국들의 다자안보협의체가 생겨서 자신들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ARF는 1994년 7월에 제 1차회의를 개최하였다. 아태지역 외무장관회담으로 최초의 정부간 정치 및 안보협의체로 출범하였고 아세안 6개국(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아세안 7개 대화상대국(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EU, 한국), 아세안 3개 옵서버국(베트남, 라오스, 파푸아 뉴기니): 18개국 외무장관등으로 매년 개최가 정례화되어 있다. 특히 동남아지역의 포괄적 안보개념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냉전기중의 적대관계국인 미국, 베트남, 한국 등이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10) FBIS Daily Report: China, 3 July 1998 을 참조.

협력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것이 양국관계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중국의 동남아진출에 교두보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베트남의 충돌은 동남아국가들의 불안을 가중시켜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할지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많은 인구와 소비잠재력, 풍부한 자원으로 동남아는 미국 등 일본에도 중요한 곳이다. 중국은 그러므로 동남아에서 다른 강대국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다자간 안보대화에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증대가능성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베트남도 중국과의 갈등이 재현된다면 이제 시작된 경제개혁과 대외관계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양국은 당분간은 육상국경과 남사군도문제 등의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지나친 행동은 자제하며 관계를 우호적으로 증대하리라 예상이 된다.<sup>12)</sup>

## V. 결 론

1979년 2월 중국의 베트남침공은 1969년 3월 중소국경 충돌과 아울러서 공산권끼리도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그 이후 베트남과 중국은 대화를 단절한 체 갈등과 대립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鄧小平개혁 이래로 중국은 일관되게 자국의 현대화를 위해 유리한 분위기를 모색 하여왔다.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개혁은 동남아시아에도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즉, 중국이 중소국 교정상화를 위해 주장했던 3대 장애요인이 고르바초프에 의해 실현된 것이다. 베트남도 결국은 도이모이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이러한 개혁의 조류에 화답하였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동남아시아가 중국의 영향력 하에 놓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력하여 왔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특히 자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 특히 약소국들 - 는 그 영향력과 패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중국의 이러한 강대국주의의 피해자라 할 수 있다. 비록 현재는 양국이 개혁정책으로 우호관계를 외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중국의 패권과 영토적 이해를 인정하는 조건하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요 결코 대등한 입장에서 국경문제 등을 타협하는 일은 중국의 역사적 행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베트남은 漢朝의 통치를 받았던 역사가 말해 주듯이 중국과 역사적으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특히 국경을 접하고 있는 관계로 군사적충돌도 자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오랫동안 군사전략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러한 군사적 갈등시기는 지나갔지만 베트남의 대중국 외교목표는 분명하다. 즉 베트남전에서 미국에 대항하였듯이 중

11) FBIS Daily Report: China, 6 October 1998을 참조.

12) 최근에 베트남은 양국의 국경을 따라서 흐르는 동트롱(Dong Trong)강에 댐을 건설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베트남이 댐을 건설하며 인위적으로 국경선을 자국에 유리하게 변경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면서도 극도로 자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양국은 계속 국경지역에서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FBIS Daily Report: China, 24 January 1998을 참조.

국이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면 방어적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베트남은 ASEAN에 가입 동남아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단결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베트남의 중국과 여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와 베트남개혁의 추진은 이러한 군사적 관점에서의 대중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분쟁과 갈등을 가져오는 요인들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을 국가개혁과 경제개방이라는 관점에서 실리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당장은 이익이 없는 소모적인 분쟁을 끝없이 벌이기보다는 국내적 발전에 더 정책우위를 두어야한다는 변화이다. 이로써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함께 중국과 베트남도 서로 화해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종합적으로 동남아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랫동안의 냉전을 끝내고 동남아는 많은 권위주의적 국가들 -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속속 민주화되고 있고 공산주의국가들도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남아는 고속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교역이 대폭 증가하여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되어 외교적으로 지엽적 대상에서 중심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시장과 풍부한 자원 등으로 중국 등 미국-일본을 비롯한 경제대국들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ASEAN을 위주로 한 APEC의 결성은 이 지역의 21세기에 있어서의 정치경제적 역동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